

한국 웰니스관광 경제적 파급효과의 탐색적 연구: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중심으로*

신미영** 나주몽***

목 차	
I. 서론	IV. 실증분석
II. 이론적 고찰	V. 결론
III. 분석방법	

| 논문요약 |

최근 한국은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인구의 증대로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 비만 등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문적인 질병 관리 서비스, 웰빙과 힐링 욕구의 증대,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웰니스관광을 세부산업으로 재분류하고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웰니스관광산업을 주요 구성 산업인 의료서비스, 개인서비스, 관광서비스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웰니스관광 육성정책의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웰니스관광의 세부산업인 의료산업(0.5508)과 개인서비스산업(0.9268), 관광산업(0.7738) 모두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 개인서비스산업이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이 의료와 관광산업에 비해 높게 나와 웰니스관광의 육성방안 수립 시 개인서비스산업과의 연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7S1A5B8059731).

** 제1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웰니스관광은 후방연계효과는 낮고 전방연쇄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웰니스 관광 산업은 도소매서비스, 교통관련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등 중간 수요적 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셋째, 한국 의료산업과 개인서비스의 산업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인서비스 콘텐츠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 주제어: 웰니스관광산업, 의료산업, 개인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외생화 산업연관모형

I. 서론

최근 한국은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인구의 증대로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 비만 등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와 질병의 증가는 전문적인 질병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웰빙과 힐링 욕구의 증대, 삶의 질 향상,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와 도시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부가가치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웰니스기구(Global Wellness Institute)가 발행한 2018년 보고서(The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웰니스관광 산업의 시장규모는 6,394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2015-2017년 연평균 6.4%씩 빠르게 성장하는 등 일반 관광산업 성장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그리고 현재까지의 웰니스관광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의 성장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웰빙·힐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웰니스관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웰니스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관광 25선’

을 선정해 발표하였고(문화체육관광부 2017a), 2018년에는 8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8b).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7개 지역(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건강과 휴양 관광자원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해양수산부도 2017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 협력 지자체 4개 지역(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을 선정하고 해양치유산업의 육성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해양수산부 2018). 이와 같이 정부는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과 순수 관광을 확장하여 건강과 치유, 관광을 융합한 웰니스관광으로 육성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관광의 수요 증가에 따라 웰니스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의료관광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웰니스관광에 대한 연구는 뷰티관광 등 웰니스관광에 속하는 일부 세부 산업부문에 대한 연구나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웰니스관광의 세부 산업부문에 대한 기초적이며 세부적인 연구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특히 정부의 육성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웰니스관광 세부 산업부문의 산업적 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신용재(2017)의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정부 정책 추진 단계에 있는 웰니스관광 산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산업적 차원에서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웰니스관광의 세부 산업부문을 정의하고 재분류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탐색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웰니스관광을 세부 산업부문으로 재분류하고 국산투입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웰니스관광산업을 주요 구성산업인 의료서비스, 개인서비스, 관광서비스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웰니스관광 육성정책의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의료와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을 정의하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2012-2014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부문)을 활용하여 각 산업을 산업연관표 중분류(75-77부문)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재분류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국산 투입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후 각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웰니스관광의 정의 및 구성

(1) 웰니스관광 (Wellness Tourism)의 정의

웰니스관광은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것이 중심 동기로 실시되는 여행과 체재로 수반하는 제반 관계와 현상의 총합’으로 신체적 피트니스, 미용관리, 건강 영양, 다이어트, 이완과 명성, 정신적인 활동과 교육 등으로 구성된 종합서비스이다(Muller & Kaufmann 2001). 또한 “질환이 없는 상태”는 “건강”이며 질환이 없는 상태로 “치료”하는 의료 관광(medical tourism)과는 “육체와 정신의 내외적인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적극적인 기능”이 “건강”이며 “건강의 증진과 질환 예방”이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이라고 정의했다(Voigt et al. 2011).

문화체육관광부(2017)는 웰니스관광을 ‘건강과 힐링(치유)를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한국 웰니스관광 테마를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치유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b). 한국관광공사(2018a, 180)는 핵심 웰니스관광 산업을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온천, 스파, 미용, 뷰티,

치유, 명상, 요가, 힐링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의 건강 증진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인 관광이다. 웰니스관광은 관광산업을 확장한 개념이며, 관광산업에 의료와 개인서비스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관광산업의 파급효과와는 다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웰니스관광의 산업 구성 선행연구

웰니스관광은 온천, 스파와 같은 관광산업과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산업, 미용과 뷰티, 요가 등의 개인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서비스산업이다.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2018a, 198)는 웰니스 관광산업 분류체계를 3개 대분류(핵심 웰니스관광 산업, 연계 웰니스관광 산업, 지원 웰니스관광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12개 중분류, 36개 소분류로 자세히 분류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8a, 198). 각 세부분류를 살펴보면, 주요 웰니스관광 세부 산업부문은 관광 부문과 뷰티 부문 및 의료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재(2017)는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서 웰니스 관광서비스를 관광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융합된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신용재 2017, 236). 이와 같이 관광과 의료·개인서비스가 융합된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의료, 개인서비스를 분류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에서 재분류해야 한다.

송학준 외(2013)는 한방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숙박, 음식점, 쇼핑, 관광교통, 문화오락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하였고 채중훈(2015)은 남북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산업연관표 기본부문(403)의 쇼핑, 음식점, 숙박, 관광교통, 문화오락서비스 등 총 2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서준교·김정훈(2019)은 의료산업을 KSIC 9차 개정 기준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로 구분하였다. 한국관광공사(2016)는 의료관광서비스 분야 중 피부관리, 마사지, 다이어트, 스파 등의 서비스가 개인서비스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연관표상의 개인서비스 분야에 포함된다고 분류하였다(신용재 2017, 238 재인용).

<표 1> 한국관광공사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 웰니스관광 산업	웰니스관련 관광 산업	웰니스관광 숙박업, 여행사업, 기타 웰니스관련 관광 산업
	웰니스 뷰티 산업	마사지·스파 산업, 기타 웰니스 뷰티 산업
	피트니스, 레저 산업	피트니스 시설업, 레저 시설업, 기타 피트니스, 레저 산업
	식이, 영양관리 산업	웰니스관광 음식점업, 웰니스관련 비알코올 음료점업
연계 웰니스관광 산업	관광 숙박업	관광 숙박업
	관광 여객 운송업	관광 철도 여객 운송업, 관광 육상 여객 운송업, 관광 수상 여객 운송업, 관광 항공 여객 운송업
	웰니스관광 관련 제조업	웰니스관광 관련 화장품 제조업, 웰니스관광 관련 장비/기기 제조업, 웰니스관광 관련 식품 제조업
	웰니스관광 관련 유통업	면세점, 웰니스관광 관련 화장품 유통업, 웰니스관광 관련 장비/기기 유통업, 웰니스관광 관련 식품 유통업, 기념품 유통업
	웰니스관광 관련 의료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병·의원(경증 의료 기관만 포함), 웰니스관광 관련 의료 진단 장비 제조업, 웰니스관광 관련 의료 진단 장비 유통업
	웰니스관광 관련 서비스업	웰니스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통역 서비스업
지원 웰니스관광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서비스업	웰니스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산업, 웰니스관광 관련 통역 서비스업
	웰니스관광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 서비스업, 관광단체

웰니스관광의 정의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웰니스관광은 관광산업, 의료산업, 개인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광산업은 쇼핑, 음식점, 숙박, 관광교통, 문화오락서비스를 분류되며 의료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개인서비스산업은 피부 관리, 마사지, 다이어트, 스파 등

미용 관련 개인서비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웰니스관광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웰니스관광의 개념과 특성 연구, 웰니스관광의 활성화 방안 연구,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신용재(2017)는 웰니스관광서비스를 의료서비스, 개인서비스, 관광서비스로 구분하고 의료서비스, 개인서비스, 관광서비스와 이 세 산업을 통합한 웰니스관광서비스를 외생화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웰니스관광서비스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2> 웰니스관광 선행연구 분류

분류	선행연구
웰니스관광의 개념, 특성	유숙희(2018), 전현미·김정기(2015), 김민철(2018), 서주환 외(2015) 등
웰니스관광의 활성화 방안	김병헌(2016), 최석남 외(2018), 신다영(2018), 이정철(2015), 야은숙(2018), 채동렬(2017), 유태규(2019), 채동렬 외(2016), 김태영(2016), 하경희(2011), 김신애(2014) 등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효과	신용재(2017)

그러나 신용재(2017)의 연구는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총투입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웰니스관광서비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만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산업연관표 소분류(161부문)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웰니스관광서비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산업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서비스 중 웰니스관광서비스와는 관련성이 적은 세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 웰니스관광과 연관된 개인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용재(2017)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부문)을 활용하였고 웰니스관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국산투입계수를 이용한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실시

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료산업, 관광산업, 개인서비스와 이 세 산업을 모두 통합한 웰니스관광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각각 77개 산업(의료/개인서비스/관광)과 75개 산업(웰니스관광)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서비스를 미용관련 서비스와 기타 개인서비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웰니스관광산업의 파급효과가 2014년에 특수하게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2년과 2013년 산업연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Ⅲ. 분석방법

1. 분석체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유사개념 조사를 통해 웰니스관광을 의료서비스와 개인 및 관광서비스가 융합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서비스의 세부 구성 산업을 규정하였다. 서준교·김정훈(2019)과 채종훈(2015), 신용재(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웰니스관광을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웰니스관광의 국민 경제의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2014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부문)을 기본으로 국산투입 수요유도형 모형과 산업연계효과를 적용하여 중분류(의료/개인서비스/관광 77부문, 웰니스관광 75부문)로 분석하였다. 또한 웰니스관광이 타 산업에 미치는 각종 유발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웰니스관광의 유발효과와 세부구성 산업인 의료산업, 개인서비스, 관광산업의 유발효과를 각각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 파급효과와 비교한 후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표 3> 웰니스관광서비스 산업분류

산업분류	통합대분류(030부문)		통합중분류(82부문)		통합소분류(161부문)		기본부문(384부문)				
의료서비스	007	화학제품	020	의약품	042	의약품	122	의약품			
	013	정밀기기	041	정밀기기	090	의료 및 측정기기	243	의료용기기			
	0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77	의료 및 보건	154	의료 및 보건	365	의료 및 보건(국공립)	366	의료 및 보건(비영리)	
개인서비스	030	문화 및 기타서비스	082	수리 및 개인서비스	161	개인서비스	367	의료 및 보건(산업)			
							381	미용관련서비스	384	기타 개인서비스	
관광서비스	019	도소매서비스	053	도소매서비스	115	도소매서비스	303	소매서비스			
	020	운송서비스	054	육상운송서비스	116	철도운송서비스	304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117	도로운송서비스	306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118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308	소화물 전문 운송서비스			
			055	수상운송서비스	119	수상운송서비스	309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310	외항운송서비스			
			056	항공운송서비스	120	항공운송서비스	311	항공운송서비스			
			057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	121	운송보조서비스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122	하역서비스	315	하역서비스			
					123	보관 및 창고서비스	316	보관 및 창고서비스			
					124	기타 운송관련서비스	317	기타 운송관련서비스			
			021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5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25	음식점 및 주점	318	일반음식점	319
	126	숙박서비스					320	기타음식점			
	030	문화 및 기타 서비스	079	문화서비스	157	문화서비스	321	숙박			
							371	문화서비스(국공립)	372	연극, 음악, 기타예술	
			08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158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373	기타 문화서비스			
							374	스포츠서비스	375	오락서비스	

· 신용재(2017), 서준교·김정훈(2019), 채종훈(2015)

2. 분석모형

(1) 외생화 산업연관 모형

특정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은 특정 산업부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경우 해당 산업부문을 외생화하여야만 그 산업부문이 다른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곽승준 외(2002)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인 원자력 부문의 최종수요 증가하는 경우에 원자력 부문의 산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원자력 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취급하지 않고 내생부문에 포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원자력 부문의 외생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자력 부문이 순수하게 다른 경제 부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면 특정산업 부문이 다른 내생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만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어 특정 산업 부문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웰니스관광을 외생화한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웰니스 산업부문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웰니스관광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웰니스관광 부문(이하 K 부문)을 외생화한 생산유발효과를 식으로 정리하면 아래 식과 같다(한국은행 2014; 송준혁 2018).

$$\Delta X^e = (I - A^e)^{-1} A_k^e$$

A^e : 웰니스관광(k) 부분의 열과 행을 제외한 국산투입계수 행렬

$(I - A^e)^{-1}$: 웰니스관광 부분(k)의 열과 행을 제외한 레온티에프 역행렬

A_k^e : 재분류한 웰니스관광 부분(k)의 투입계수 열벡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웰니스관광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웰니스관광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뜻하고 식은

아래와 같다.

$$\Delta W^e = \hat{A}^{v^e} (I - A^e)^{-1} A_k^e$$

\hat{A}^{v^e} : 웰니스관광(k) 부분의 열과 행을 제외한 부가가치계수 대각행렬

$(I - A^e)^{-1} A_k^e$: 웰니스관광 부분(k)의 생산유발계수 열벡터

(2) 산업연계 효과

산업연계효과는 전방/후방연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산감응도(Sensitivity of dispersion)를 측정하여 전방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확산력(Power of dispersion)을 측정하여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가 있다(Hirschman 1958; Jones 1976; 이정전 1983; 정동원 외 2013). 전방 연계효과(FLi)는 산업 i의 제품이 다른 산업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로 전 부문의 최종수요 모두를 한 단위씩 증가시키기 위해 i번째 산업이 생산해야 할 단위의 전 산업 평균치에 대한 비율로 i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될수록 크게 나타난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임을 의미한다(한국은행 2014).

$$FL_i = \frac{\frac{1}{n} \sum_{j=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후방연계효과(BLi)는 산업 i의 제품이 다른 산업의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로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이며 i산업의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즉,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는 1보다 크게 나타난다.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의 최종 수요의 증가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큰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산업임을 의미한다(한국은행 2014).

$$BL_i = \frac{\frac{1}{n} \sum_{i=1}^n \alpha_{ij}}{\frac{1}{n^2} \sum_{i=1}^n \sum_{j=1}^n \alpha_{ij}}$$

IV.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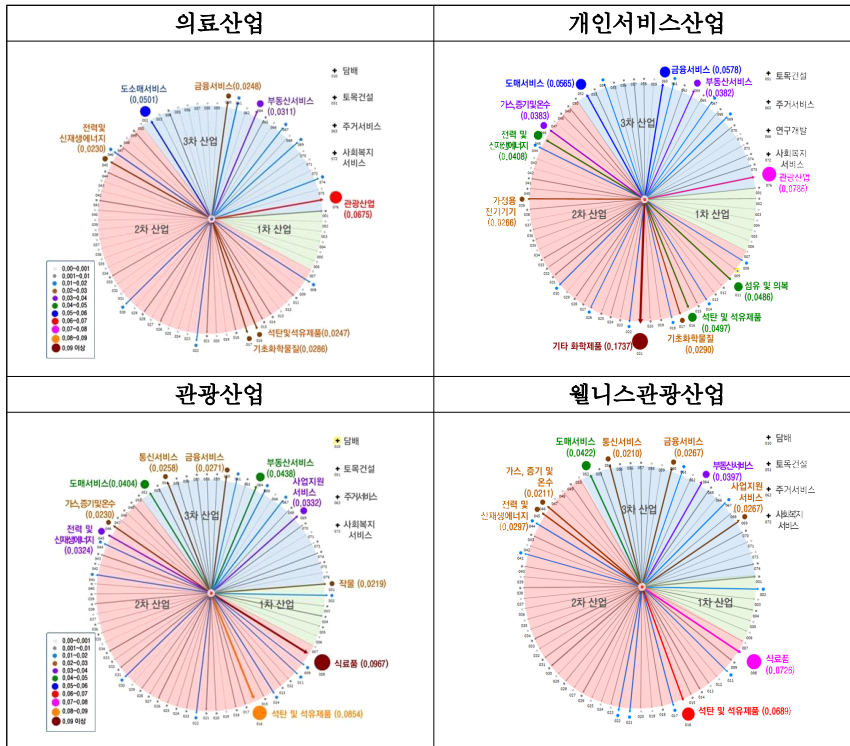
1. 생산유발효과

웰니스관광과 의료산업, 개인서비스,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그림 1>, <표 5>와 같다. 총 유발효과는 의료산업 0.5508원, 개인서비스 0.9268원, 관광산업 0.7738원이며, 웰니스관광은 0.686의 생산을 유발한다. 생산유발효과는 개인서비스가 가장 높고 의료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웰니스관광은 전체 75개 산업 중 44번째로 높았으며, 의료산업보다는 다소 높지만 개인서비스와 관광산업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로 생산유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산업은 관광산업(0.0675)의 생산을 가장 많이 유발하며 도소매서비스(0.0501), 부동산서비스(0.0311), 기초화학물질(0.0286), 금융서비스(0.024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서비스는 기타 화학제품(0.173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산업(0.0786), 금융서비스(0.0578), 도소매서비스(0.0565), 석탄 및 석유제품(0.0497) 순으로 나타났고 의료서비스와 유사하게 서비스산업의 생산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은 식료품(0.09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석탄 및 석유제품(0.0854), 부동산서비스(0.0438), 도소매서비스(0.0404), 사업지원서비스(0.0332) 순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관광은 식료품(0.0726), 석탄 및 석유제품(0.0689), 도소매서비스(0.0422), 부동산서비스(0.0397), 전력 및 신재생에

너지(0.0297) 순으로 분석되었고, 관광산업과 유사하게 생산 유발하였다.

<그림 1> 의료/개인서비스/관광/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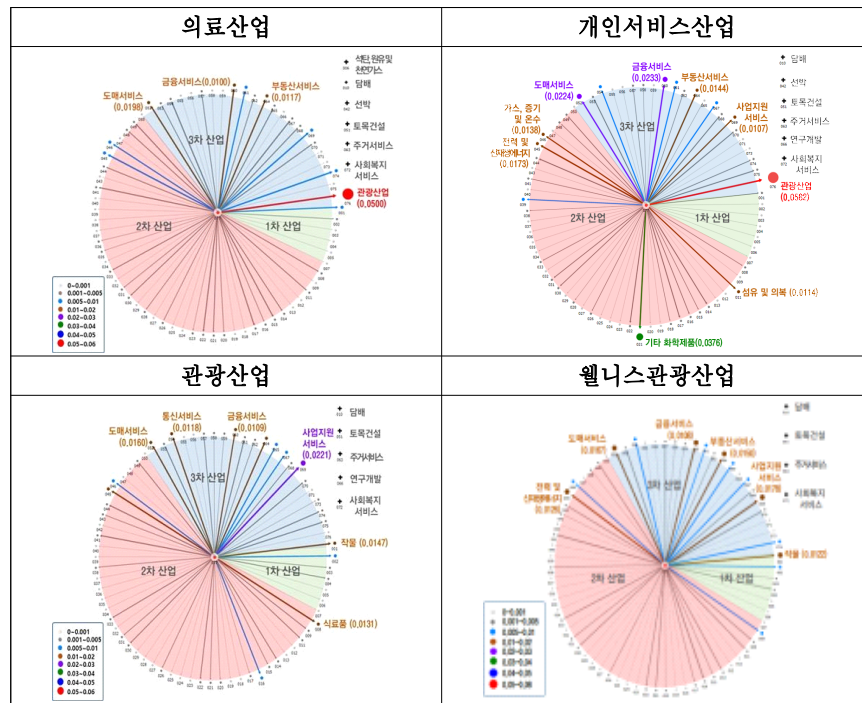
2. 부가가치유발효과

웰니스관광과 의료산업, 개인서비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그림 2>, <표 6>과 같다. 총 유발효과는 의료산업 0.2171, 개인서비스 0.3137, 관광산업 0.2512이며, 웰니스관광은 0.2224의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 또한, 개인서비스가 가장 높고 의료산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웰니스관광은 전체 75개 산업 중 61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의료산업보다는 다소 높지만 개인서비스와 관광산업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유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산업은 관광

산업(0.0500)의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유발하며 도소매서비스(0.0198), 부동산서비스(0.0117), 금융서비스(0.0100), 수리 및 개인서비스(0.0097) 등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많이 유발한다. 개인서비스는 관광서비스(0.0582), 관광산업은 사업지원서비스(0.0221)가 가장 높고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웰니스관광은 사업지원서비스(0.0178), 도소매서비스(0.0167), 부동산서비스(0.0150),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0.0126), 작물(0.01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의료/개인서비스/관광/웰니스관광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 산업연계효과

의료산업, 개인서비스, 관광산업과 이 세 산업을 통합한 웰니스관광의 전후방연계효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전후방연계효과는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Manufacture type of intermediate demand),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Raw industrial of intermediate demand),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Manufacture type of final demand),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Raw industrial of final demand)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4).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은 전후방연계효과의 결과 값이 모두 1보다 큰 경우이며,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은 전방연계효과는 높고 후방연계효과는 낮은 산업을 의미한다.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은 후방연계효과는 높고 전방연계효과가 낮은 산업이며, 최종수요적 원시산업형은 전후방연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을 의미한다.

의료산업은 영향력계수 0.8812, 감응도계수 0.8011이며, 개인서비스는 영향력계수 0.9789, 감응도계수 0.5505로 의료산업과 개인서비스는 모두 전후방연계효과가 낮은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과 웰니스관광은 영향력계수(관광산업 0.9512, 웰니스관광 0.9349)가 1보다 낮고 감응도계수(관광산업 3.8428, 웰니스관광 4.0700)으로 1보다 높은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분석되었다.

각 산업의 후방연계효과의 순위를 살펴보면, 의료산업은 77개 산업 중 57번째, 개인서비스 43번째, 관광산업 47번째이며, 웰니스관광은 75개 산업 중 49번째로 모두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산업의 감응도계수는 총 77개 산업 중 37번째로 나타났고, 개인서비스는 70번째, 관광산업은 1위로 나타났으며 웰니스관광은 75개 산업 중 1위로 나타나 웰니스관광의 전방연계효과는 관광산업의 양향을 크게 받고 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산업연계효과

구분	영향력계수 (후방연쇄)	감응도계수 (전방연쇄)	영향력계수 Manufacture type of final demand Manufacture type of intermediate demand Raw industrial of final demand Raw industrial of intermediate demand
의료서비스	0.8812	0.8011	개인, 의료
개인서비스	0.9789	0.5505	관광, 웰니스관광
관광서비스	0.9512	3.8428	
웰니스관광	0.9349	4.0700	

<표 5> 외생화 산업연관모형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효과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01	작물	0.0098	0.0037	0.0219	0.0181	040	정밀기기	0.0046	0.0020	0.0028	0.0031
002	축산물	0.0032	0.0023	0.0173	0.0133	041	자동차	0.0092	0.0072	0.0139	0.0123
003	임산물	0.0004	0.0003	0.0018	0.0014	042	선박	0.0001	0.0001	0.0019	0.0014
004	수산물	0.0007	0.0008	0.0091	0.0067	043	기타 운송장비	0.0006	0.0003	0.0082	0.0061
005	농림어업 서비스	0.0004	0.0002	0.0012	0.0010	044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입가공	0.0097	0.0157	0.0154	0.0137
006	석탄, 원유, 천연가스	0.0001	0.0001	0.0001	0.0001	045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0230	0.0408	0.0325	0.0297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0003	0.0005	0.0003	0.0003	046	가스, 증기 및 온수	0.0154	0.0383	0.0230	0.0211
008	식료품	0.0122	0.0129	0.0967	0.0726	047	수도	0.0052	0.0008	0.0015	0.0024
009	음료품	0.0011	0.0015	0.0128	0.0095	048	폐수처리	0.0036	0.0032	0.0014	0.0019
010	담배	0.0000	0.0000	0.0000	0.0000	049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0.0083	0.0059	0.0052	0.0058
011	섬유 및 의복	0.0089	0.0486	0.0121	0.0120	050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0021	0.0017	0.0021	0.0021
012	가죽제품	0.0016	0.0014	0.0021	0.0019	051	토목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13	목재 및 목제품	0.0010	0.0014	0.0036	0.0028	052	도소매서비스	0.0501	0.0565	0.0404	0.0422
014	펄프 및 종이제품	0.0090	0.0140	0.0136	0.0122	053	육상운송서비스	0.0046	0.0075	0.0080	0.0070
015	인쇄 및 복제	0.0067	0.0060	0.0041	0.0047	054	통신서비스	0.0094	0.0127	0.0258	0.0210
016	석탄 및 석유제품	0.0247	0.0497	0.0854	0.0689	055	방송서비스	0.0014	0.0017	0.0061	0.0047
017	기초화학물질	0.0286	0.0290	0.0078	0.0131	056	정보서비스	0.0016	0.0023	0.0039	0.0032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56	0.0129	0.0054	0.0056	057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0.0037	0.0047	0.0068	0.0059
019	화학섬유	0.0004	0.0017	0.0005	0.0005	058	출판서비스	0.0014	0.0036	0.0035	0.0029
020	비료 및 농약	0.0043	0.0013	0.0034	0.0035	059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0006	0.0006	0.0035	0.0027
021	기타 화학제품	0.0089	0.1737	0.0091	0.0130	060	금융서비스	0.0248	0.0578	0.0271	0.0267
022	플라스틱제품	0.0115	0.0199	0.0142	0.0134	061	보험서비스	0.0154	0.0135	0.0112	0.0120
023	고무제품	0.0041	0.0016	0.0037	0.0036	062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0035	0.0037	0.0029	0.0030
024	유리 및 유리제품	0.0028	0.0030	0.0016	0.0019	063	주거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02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0009	0.0010	0.0012	0.0011	064	부동산서비스	0.0311	0.0382	0.0438	0.0397
026	철강1차제품	0.0065	0.0100	0.0080	0.0075	065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0055	0.0016	0.0144	0.0118
027	철강가공제품	0.0028	0.0029	0.0027	0.0027	066	연구개발	0.0012	0.0000	0.0001	0.0004
028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	0.0065	0.0076	0.0033	0.0041	067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100	0.0124	0.0187	0.0161
029	금속 주물	0.0008	0.0008	0.0008	0.0008	068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0047	0.0042	0.0040	0.0041
030	금속제품	0.0117	0.0152	0.0146	0.0136	069	사업지원서비스	0.0103	0.0161	0.0332	0.0267
031	일반목적용기계	0.0041	0.0085	0.0073	0.0064	070	공공행정 및 국방	0.0047	0.0064	0.0068	0.0061
032	특수목적용기계	0.0022	0.0029	0.0027	0.0025	071	교육서비스	0.0003	0.0005	0.0007	0.0006
033	전기장비	0.0058	0.0072	0.0093	0.0082	072	사회복지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34	반도체	0.0031	0.0005	0.0005	0.0011	073	사회단체	0.0011	0.0012	0.0016	0.0015
035	전자표시장치	0.0027	0.0015	0.0018	0.0020	074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0145	0.0036	0.0066	0.0082
036	기타 전자부품	0.0037	0.0016	0.0016	0.0021	075	개인서비스/의료	0.0005	0.0066	0.0052	
0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007	0.0004	0.0006	0.0006	076	관광/개인서비스	0.0675	0.0786	0.0017	
038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0031	0.0032	0.0057	0.0049	합계		0.5508	0.9268	0.7738	0.6861
039	가정용 전기기기	0.0007	0.0266	0.0022	0.0024						

<표 6> 외생화 산업연관모형 웰니스관광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01	작물	0.0066	0.0025	0.0147	0.0122	040	정밀기기	0.0009	0.0004	0.0005	0.0006
002	축산물	0.0013	0.0009	0.0071	0.0054	041	자동차	0.0026	0.0021	0.0040	0.0035
003	임산물	0.0003	0.0002	0.0015	0.0011	042	선박	0.0000	0.0000	0.0005	0.0003
004	수산물	0.0003	0.0003	0.0033	0.0025	043	기타 운송장비	0.0001	0.0001	0.0014	0.0011
005	농림어업 서비스	0.0002	0.0001	0.0006	0.0005	044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0.0024	0.0038	0.0037	0.0033
00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0.0000	0.0001	0.0001	0.0001	045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0.0097	0.0173	0.0137	0.0126
007	금속 및 비금속광물	0.0002	0.0003	0.0002	0.0002	046	가스, 증기 및 온수	0.0056	0.0138	0.0083	0.0076
008	식료품	0.0017	0.0017	0.0131	0.0098	047	수도	0.0008	0.0001	0.0002	0.0003
009	음료품	0.0003	0.0004	0.0033	0.0025	048	폐수처리	0.0021	0.0019	0.0008	0.0011
010	담배	0.0000	0.0000	0.0000	0.0000	049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0.0038	0.0027	0.0024	0.0027
011	섬유 및 의복	0.0021	0.0114	0.0028	0.0028	050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0.0008	0.0007	0.0009	0.0008
012	가죽제품	0.0004	0.0003	0.0004	0.0004	051	토목건설	0.0000	0.0000	0.0000	0.0000
013	목재및목제품	0.0002	0.0003	0.0008	0.0006	052	도소매서비스	0.0198	0.0224	0.0160	0.0167
014	펄프 및 종이제품	0.0023	0.0036	0.0035	0.0031	053	육상운송서비스	0.0023	0.0038	0.0040	0.0035
015	인쇄 및 복제	0.0025	0.0022	0.0015	0.0017	054	통신서비스	0.0043	0.0058	0.0118	0.0096
016	석탄 및 석유제품	0.0016	0.0032	0.0055	0.0045	055	방송서비스	0.0001	0.0002	0.0006	0.0005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17	기초화학물질	0.0038	0.0039	0.0010	0.0018	056	정보서비스	0.0004	0.0006	0.0009	0.0008
018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0007	0.0017	0.0007	0.0007	057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관리서비스	0.0017	0.0021	0.0031	0.0027
019	화학섬유	0.0001	0.0003	0.0001	0.0001	058	출판서비스	0.0005	0.0014	0.0013	0.0011
020	비료 및 농약	0.0016	0.0005	0.0013	0.0013	059	영상, 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0.0002	0.0002	0.0013	0.0010
021	기타 화학제품	0.0019	0.0376	0.0019	0.0028	060	금융서비스	0.0100	0.0233	0.0109	0.0108
022	플라스틱제품	0.0029	0.0049	0.0035	0.0033	061	보험서비스	0.0064	0.0056	0.0047	0.0050
023	고무제품	0.0010	0.0004	0.0009	0.0009	062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0.0019	0.0020	0.0016	0.0016
024	유리 및 유리제품	0.0008	0.0008	0.0004	0.0005	063	주거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02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0004	0.0004	0.0005	0.0004	064	부동산서비스	0.0117	0.0144	0.0165	0.0150
026	철강1차제품	0.0015	0.0023	0.0019	0.0017	065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0.0035	0.0010	0.0090	0.0074
027	철강가공제품	0.0003	0.0004	0.0003	0.0003	066	연구개발	0.0005	0.0000	0.0000	0.0001
028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0.0011	0.0013	0.0006	0.0007	067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0048	0.0060	0.0091	0.0078
029	금속 주물	0.0001	0.0001	0.0001	0.0001	068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0.0038	0.0034	0.0032	0.0033
030	금속제품	0.0023	0.0030	0.0028	0.0027	069	사업지원서비스	0.0069	0.0107	0.0221	0.0178
031	일반목적용기계	0.0012	0.0026	0.0022	0.0019	070	공공행정 및 국방	0.0026	0.0036	0.0038	0.0034
032	특수목적용기계	0.0006	0.0008	0.0007	0.0007	071	교육서비스	0.0001	0.0003	0.0004	0.0003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033	전기장비	0.0017	0.0021	0.0028	0.0024	072	사회복지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034	반도체	0.0009	0.0002	0.0001	0.0003	073	사회단체	0.0007	0.0008	0.0011	0.0009
035	전자표시장치	0.0010	0.0006	0.0007	0.0008	074	수리 및 개인 서비스	0.0097	0.0024	0.0044	0.0055
036	기타 전자부품	0.0010	0.0004	0.0004	0.0005	075	개인서비스/의료	0.0004	0.0049	0.0045	
037	컴퓨터 및 주변기기	0.0002	0.0001	0.0001	0.0001	076	관광/개인서비스	0.0500	0.0582	0.0007	
038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0.0009	0.0010	0.0017	0.0015	합계		0.2171	0.3137	0.2512	0.2224
039	가정용 전기기기	0.0001	0.0051	0.0004	0.0005						

4. 2012-2014년 비교

2012-2014년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한 결과, 의료/개인서비스/관광/웰니스 관광의 생산유발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개인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각 산업별로 크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서비스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개인서비스/관광/웰니스 관광의 개별 산업의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도 2014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2012년 2013년 모두 의료 및 개인서비스는 관광산업의 생산/부가가치유발을 많이 유발하였고 관광과 웰니스관광 또한 2014년 유사하게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연도별 외생화 산업연관모형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효과

구분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2012	0.5405	0.8401	0.7684	0.6827
2013	0.5599	0.8861	0.7793	0.6946
2014	0.5508	0.9268	0.7738	0.6861

<표 8> 연도별 외생화 산업연관모형 웰니스관광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구분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	웰니스관광
2012	0.2083	0.2919	0.2489	0.2195
2013	0.2181	0.2956	0.2489	0.2219
2014	0.2171	0.3137	0.2512	0.2224

V. 결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만성 질환, 비만 등 질병의 증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웰빙, 웰니스, 힐링, 헬스케어 등 육체적·정신적 치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의료와 관광, 미용·뷰티를 융합한 웰니스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값싸고 수준 높은 의료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미용·뷰티, 요가 등 개인서비스와 숲 치유, 해양 치유, 스파 등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웰니스관광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웰니스관광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웰니스관광의 육성에 있어 산업육성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웰니스관광의 세부 산업부문을 의료산업, 개인서비스산업, 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각 세부 산업부문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부문)을 기초로 77개 산업으로 중분류하고 다시 세 산업을 웰니스관광(75개 산업)으로 통합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각 산업을 국산 투입 외생화기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연계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도출하였고 2012-2014년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효과는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면 타 산업의 생산을 0.6861만큼 유발하고 부가가치는 0.2224만큼 유발하는 것으로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부가가치는 전체 75개 산업 중 61번째로 낮아 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방안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웰니스관광의 세부산업인 의료산업(0.5508)과 개인서비스산업(0.9268), 관광산업(0.7737) 모두 높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그중 개인서비스산업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의료와 관광산업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뷰티 소비 트렌드 변화와 관광 콘텐츠의 한 부문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의 육성방안 수립 시 개인서비스산업과의 연계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웰니스관광은 후방연계효과는 낮고 전방연계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나타났다. 신용재(2017)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웰니스관광 산업이 도소매서비스, 교통관련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등의 중간 수요적 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는 웰니스관광의 수요 변화가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보다는 타 산업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산업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웰니스관광은 세부 구성산업인 의료산

업과 개인서비스산업보다 관광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관광산업은 의료와 개인서비스산업에 의해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개인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의료와 개인서비스 산업 콘텐츠의 구성을 기본으로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하였을 때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 의료산업과 개인서비스의 산업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인서비스 콘텐츠의 국산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재(2017)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0.893, 개인서비스는 1.265로 나타났으나, 국산투입계수를 적용한 생산유발계수는 의료산업 0.5508, 개인서비스산업 0.9268로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이유로 웰니스관광의 생산유발효과도 낮게 분석되었다(0.900→0.6861). 이는 의료산업과 개인서비스산업의 국산투입비율이 낮아 이 두 산업의 성장이 국내 경제의 성장을 제대로 유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웰니스관광 육성 시 의료산업과 개인서비스산업의 구성 콘텐츠의 국산화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R&D, 기술개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2012-2014년 의료, 개인서비스, 관광산업과 웰니스관광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교한 결과, 의료, 관광, 웰니스관광산업의 유발효과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개인서비스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 경제 파급효과가 적은 웰니스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2-2014년 산업연관표 기본부문(384부문)을 중심으로 한국 웰니스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요유도형 모형과 산업연계효과에 한정하여 분석한 한계가 있고 국내 경제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시도의 파급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발표한 2015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수요와 공급유도형 모형을 통해 물가파급효과, 수입유발효과, 세수유발효과, 고용창출

효과 등의 웰니스관광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한국 웰니스관광 산업의 산업생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확장하여 지역별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곽승준·유승훈·유태호 (2002). “원자력 발전의 산업과급효과분석.” 『경제학연구』, 제50권, 제3호, pp. 83-109.
- 김민철 (2018). “스마트 웰니스 기초 조사를 위한 웰니스 관광 활동 분류.” 『관광과 산업연구』, 제38권, 제2호, pp. 23-28.
- 김병현 (2016). “웰니스관광의 개념과 활성화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진흥연구』, 제4권, pp. 107-128.
- 김신애 (2014). “경주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프로그램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주환·도지윤·Ochir Batchimeg·김진표 (2015). “웰니스 투어리즘 개념을 도입한 테마형 농촌 공간 디자인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18권, pp. 237-252.
- 서준교·김정훈 (2019). “의료산업의 네트워크 및 경쟁력 분석-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제42권, pp. 25-55.
- 송준혁 (2018). “외생화 및 내생화 기법을 이용한 산업연관효과 비교 분석: 주거영 건물 건설업을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제24권, 제1호, pp. 103-115.
- 송학준·문지효·최상수·이충기 (2013). “한방의료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22권, pp. 221-233.
- 신다영 (2018).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뷰티헬스케어 인프라 방안 연구: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용재 (2017). “웰니스(Wellness) 관광서비스 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8권, pp. 227-250.
- 야은숙 (2018). “한국 웰니스 관광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웰니스 관광 콘텐츠 및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양관광학연구』, 제11권, pp. 83-103.
- 유숙희 (2018). “웰니스관광 평가척도 개발-헤도닉(hedonic)과 에우다이모닉(eudaimonic)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태규 (2019). “국내 주요 웰니스 관광지 구축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pp. 665-675.
- 이정전 (1983). “연쇄효과지표에 관한 고찰.” 『경제학연구』, 제31권, pp. 57-80.
- 이정철 (2015). “농어촌지역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방안: 웰니스/의료관광을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제27권, pp. 75-92.
- 전현미·김정기 (2015).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을 위한 호텔 계획 특성 연

-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5권, pp. 158-162.
- 채동렬 (2017). “해양자원의 웰니스 산업적 이용가능성과 해외치유관광 개발 전략.” 『해양관광연구』. 제10권, pp. 65-81.
- 채중훈 (2015). “남북한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9권, pp. 153-174.
- 최석남·이중현·채일순 (2018).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86권, pp. 625-650.
- 하경희 (2011). “웰니스 투어리즘과 한방의료관광.” 『관광연구』. 제32권, pp. 35-81.
-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
- Hirschman, A. O. (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ones, L. P. (1976). “The Measurement of Hirschmanian Linkage Hypothe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0. No. 2, pp. 323-333.
- Muller, H. and E. L. Kaufmann (2001). “Wellness Tourism—Market analysis of a special health tourism segment and implications for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Vol. 7, pp. 5-17.
- Voigt, C., G. Brown and G. Howat (2011). “Wellness tourists; in search of transformation.” *Tourism Review*. Vol. 66, pp. 16-30.

2. 기타

- 김태영 (2016). “경남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제언.” 경남발전연구원.
- 정동원 외 (2013).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대구경북연구원.
- 채동렬 외 (2016). “해양항노화-웰니스 융·복합산업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한국관광공사 (2016). “한국의 의료관광 마케팅 2016 한국의료관광의 현재와 미래.” 한국관광공사.
- _____ (2018a). “웰니스관광 산업분류 구축방안.” 한국관광공사.
- Global Wellness Institute (2018). “The Global Wellness Tourism Economy.” Global Wellness Institute.
- 문화체육관광부 (2017a). “웰니스관광 25선 선정, 건강과 힐링 관광 본격 육성.” 보도자료.
- _____ (2017b). “웰니스 관광으로 새로운 관광 한국 이끈다.” 보도자료.
- _____ (2018).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는 지역 웰니스 관광 거점 육성.” 보도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8b). “웰니스 관광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이끈다.” 보도자료.

376 아태연구 제27권 제1호 (2020)

해양수산부 (2018). “한국형 해양치유를 찾아라! 해양치유 국제포럼 개최.” 보도자료.

| 논문투고일 : 2020년 02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20년 02월 25일 |

| 게재 확정일 : 2020년 03월 16일 |

| ABSTRACT |

**A Exploratory Research of Economic Effects on
Wellness Tourism Industry in Korea:
Exogenous Specified Input-Output Model**

Shin, Mi Young and Na, Ju Mong

(Dept. of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sub-industries of wellness tourism on the national econom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medical services, personal services and tourism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Wells Tourism on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by comparing the economic effects between industries. In this study, wellness tourism is defined as a fusion of medical service and individual service, tourism service through similar concept survey, and the detailed composition industry of each service is defined.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Korean Input-Output Table, which is based on the demand driven model and the industry linkage effect. As a result,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was 0.5508 won for medical industry, 0.9268 won for personal service, 0.7738 won for tourism industry, and 0.6861 won for wellness tourism. The add-value inducing effect was 0.2171 won for medical industry, 0.3137 won for personal service, 0.2512 won for tourism industry, and 0.2224 won for wellness tourism. The medical and personal service industries are analyzed as the raw industrial of final demand, and the tourism and wellness tourism industries as the raw industrial of intermediate demand. The private service industry is expected to generate more production and value-added inducing effect than medical and tourism industries and to

find a way to link up with the personal service industry when setting up the development of wellness tourism.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wellness tourism will increase when the tourism industry is linked with the medical and personal service industry contents that can induce domestic production and attract consumers. In order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edical industry and the personal service industry, R&D and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 Key words: Wellness Tourism Industry, Medical Industry, Personal Service Industry, Tourism Industry, Exogenous Specified Input-Output model